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2023. 9. 3. 바셀 캠퍼스 다이브홀 오후 2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권준 목사의 목양칼럼 _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시는 순장님, 교구장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모두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일찍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탕자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달려가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교회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원들을 섬기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모임이 되도록, 우리는 순모임 프리뷰로 모입니다. 매달 첫 주일 오후 2시에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먼저 순모임을 시연하고,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들을 품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순모임이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전체의 사역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양들이 돌아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저와 함께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교구장님, 순장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권 준 드림

목차

순의 비전과 역할 04

순의 목표 04

교구장/순장의 세 가지 정체성 05

교구장의 역할 05

순장의 역할 06

순모임 시간표(샘플) 07

순모임 프리뷰 1 08

순모임 프리뷰 2 13

9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18

순의 비전과 역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이 말씀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 줍니다. 초대교회의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 교회도 '순'이라는 작은 공동체로 모입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나눔 통해 모든 순원들이 어려움의 시기를 함께 견디고, 이기게 됩니다. 지속적인 복음 전도를 통하여 순이 성장하고 분리하게 됩니다. 분순의 과정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의 재생산 과정을 통해서 형제교회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하게 될 것을 함께 바라봅니다.

순의 목표

1. 교구장/순장은 순원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엎드리도록 목표해야 합니다. 물론, 순 식구들이 모일 때 일상의 주제들(직장, 자녀교육, 운동 등)을 나눌 수 있지만,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간증이 나와야 합니다.
2. 교구장/순장은 순원들이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목표해야 합니다. 순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원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영적 가족 됨을 목표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3. 교구장/순장은 순원들이 주님의 일군으로 살아가도록 목표해야 합니다. 교구장/순장들은 순원들의 은사를 잘 살펴서, 순 모임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4. 교구장/순장은 순원들이 새가족을 환영하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분순의 과정을 거쳐 재생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도록 목표해야 합니다.

교구장/순장의 세 가지 정체성

1 목자로서의 교구장/순장

교구장/순장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원들을 사랑함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리더입니다.
가정을 심방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순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재적인 지도자나 부순장을 목자의 심정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2 경영자로서의 교구장/순장

순원들의 은사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맡기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순의 사역을 함께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순원들의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점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3 지도자로서의 교구장/순장

순원들로 하여금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비전을 성취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비전과 장단기적인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담당 공동체 목회자들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교구 및 순에서 소통해야 합니다.
부 순장을 비롯한 은사가 있는 리더십들을 공동체 목회자와 함께 발견하여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교구장의 역할

1. 담임목회자, 공동체 목사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구 내 상황을 공유하고, 교제, 양육, 멘토링을 받아 교구의 순장님들을 행정적, 영적으로 돕습니다.
2. 순장들과 만나서 순장이 겪는 어려움들을 듣고, 조언 및 기도로 돕습니다.
3. 교회와 순의 행정적인 중간역할을 하며, 공동체 목회자와 긴밀하게 대화합니다.
4. 교구에 속한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5. 교구 내 순을 순회하여 방문하고, 순장과 순원들을 격려합니다.
6. 교구에 들어온 새가족을 공동체 목사와 함께 심방하여, 순과 사역팀에 배치합니다.
7. 순 식구들의 애경사에 함께 참석합니다.
8. 예비순장학교, 순장교육, 순장수련회, 세미나 등을 섬깁니다.

순장의 역할

1. 공동체 목사와 교구장과 수시로 대화하고, 순의 상황을 공유하며, 양육 멘토링을 받아 순원들을 섬깁니다.
2. 순모임 프리뷰 등을 통해 순모임을 미리 준비하고, 실제 순모임을 인도합니다.
3. 주중에 순원들과 전화하거나 만남을 통하여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코치 및 격려 기도를 합니다.
4. 순에 들어온 새가족을 공동체 목사와 함께 심방하고 환영합니다.
5. 공동체 목사와 함께 순 식구들의 애경사에 동참합니다.
6. 교구장과 함께 부순장 및 사역 부서에 참여하여 봉사하도록 공동체 담당 목사와 상의합니다.
7. 연중 진행되는 예비순장학교, 순장교육, 순장수련회, 세미나 등에 참여합니다.
8. 순의 특이 사항(갈등이나 어려움 등)을 목회자와 교구장과 빠른 시간 안에 공유합니다.
   - 출산 시 날짜, 부모님 이름, 아이 이름, 성별, 병원이름을 공동체 목회자에게 알립니다.

     예) ◯공동체 ◯◯◯/◯◯◯ 부부 둘째 아들 ◯◯◯가 4/23일 벨뷰 커클랜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 장례 시 부모님 이름, 직책, 날짜, 장례일정 등 아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공동체 목회자에게 알립니다.

     예) ◯공동체 ◯◯◯의 어머니 ◯◯◯ 권사(직분)께서 4/23 소천 되셨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순모임 시간표(샘플)

순모임은 2주마다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고, 다음과 같은 모델을 참고하여, 순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순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영역(90분)	모임 내용	모임 방향
환영 10분	아이스브레이크를 위한 질문을 준비하여 마음을 열도록 도와 주십시오.	서로를 향하여
경배 10분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높여 드리십시오. 주님을 모임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적용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나누십시오.	말씀 실천을 향하여
기도 20분	서로의 기도제목,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향하여
사역 10분	순 내에서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선교를 위해서도 순모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불신자를 향하여

-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되, 다과는 최소한으로 준비합니다.
- 주중에 순장의 카톡과 질문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을 합니다.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과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히브리서 4:12-16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12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to the division of soul and of spirit, of joints and of marrow, and discerning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4: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4:13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13 And no creature is hidden from his sight, but all are naked and exposed to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4:14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Jesus the Great High Priest 14 Since then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passed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4:15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5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4:16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16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초대 교회에는 여러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핍박과 회유를 받아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여, 핍박과 회유 중에도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1-3장에서 저자는 천사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4-10장까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사의 요소들(레위 제사장, 희생 제물)보다 더 우월하며, 그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특성을 어떻게 묘사했나요(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묘사합니다.

해설 12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표현의 동사의 형태도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능동태 분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햇빛에 더 가까이 갈 수록 그림자가 진하게 보이듯,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록 우리의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연약함과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 적용과 나눔

하나님의 말씀이 수치스러운 나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해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 됨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애통해 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의 길, 해결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2-1 관찰과 묵상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나요(15-16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2-2 적용과 나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여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설 우리는 나 자신의 의나 확신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의지한다면,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1.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2.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12절a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라는 표현은 능동태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특성을 언급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사 55:11).

12절b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시며,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F. F. Bruce, Hebrews (NICNT), 140).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the sword of the Spirit)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엡 6:17; George H.Guthrie, Hebrews(NIV Application), 332).

12절c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분별하며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사람이 구성과 관련하여 삼분설(영, 혼, 육체로 사람이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 살전 5:23, 히 4:12)보다는 이분설(영혼과 육체로 사람이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을 지지합니다(창 2:7, 요 3:6, 고전 7:34, 약 2:26, 벧전 2:21). 그러므로 순모임에서 이 표현을 다룰 때, 사람의 구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13절에서 언급한 대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드러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예입니다.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을 알고 판단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5).

14절a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제사를 염두해두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큰'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the annual Day of Attonement, 레 16:1-25)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 즉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히 8:2, 9:1-28)는 의미가 '큰 대제사장'에 담겨 있습니다.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연약함(weaknesses)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도덕적 연약함과 관련된 단어입니다(Guthrie, Hebrews(NIV Application), 407).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도덕적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16절a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의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표현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 당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도움이었습니다(Guthrie, Hebrews(NIV Application), 408).

16절b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저자가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mercy seat)염두해 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쪽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속죄일에 제물이 드려졌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보좌에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를 나타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출 25:22).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자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다스리심을 나타냅니다.

마음 열기 Ice Breakers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과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어 보세요.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히브리서 12:1-11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1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weight, and sin which clings so closely,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2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3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3 Consider him who endured from sinners such hostility against himself, so that you may not grow weary or fainthearted.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4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4 In your struggle against sin you have not yet resisted to the point of shedding your blood.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5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5 And have you forgotten the exhortation that addresses you as sons? "My son, do not regard lightly the discipline of the Lord, nor be weary when reproved by him.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6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6 For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and chastis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7 연단을 견뎌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7 It is for discipline that you have to endure. God is treating you as sons. For what son is there whom his father does not discipline?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8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8 If you are left without discipline, in which all have participated, then you are illegitimate children and not sons.
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9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9 Besides this, we have had earthly fathers who disciplined us and we respected them. Shall we not much more be subject to the Father of spirits and live?
10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0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10 For they disciplined us for a short time as it seemed best to them, but he disciplines us for our good, that we may share his holiness.
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1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11 For the moment all discipline seems painful rather than pleasant, but later it yields the peaceful fruit of righteousness to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들의 명예의 전당', 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으로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자는 믿음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12장 1-11절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경주하라는 메세지입니다. 4-11절은 고난 또는 고통스러운 연단을 경험할지라도 인내함으로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나 이 훈련은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성장과 교육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는 재림의 날에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훈련'이라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3 관찰과 묵상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1-2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도들은 먼저 욕심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거리낌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무거운 죄악들을 맡겨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경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 앞에 있는 상황에 매몰되거나 되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인내는 상황을 견디는 것과 함께, 그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믿음의 발걸음을 적극적으로 내딛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시선이 고정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적용과 나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나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설 죄악을 버림: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것과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등과 같은 일상에서의 죄악을 주의하여 버려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는 신앙인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일곱 가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눔을 위해 이 책의 차례를 소개합니다(1장 교만: 뭇별 위의 보좌, 2장 시기: 녹색 눈의 괴수, 3장 분노: 사탄의 화로, 4장 나태: 정오의 마귀, 5장 탐욕: 불룩 나온 올챙이 배, 6장 탐식: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7장 정욕: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하나님과의 교제시간: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시간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행하실 때, 식사조차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쁜 스케쥴에도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막 1:35). 새벽이나 저녁 등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며,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력이 생길 것입니다.

2-1 관찰과 묵상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6-11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순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해설 징계는 역설적으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6절에 기록된 징계하다라는 헬라어, '파이듀오'는 '양육하다, 습관을 들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징계 안에는 교육과 양육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로 가도록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로 연단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징계와 고난을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 앞에 주어진 징계는 고통스럽지만, 인내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2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나를 징계로 연단하신 일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연단의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 나누어보세요.

해설 순장님이 먼저 순원들 앞에서 연단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심을 표현했습니다. 욥도 고난이 영적 훈련을 위해 주어질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 연단은 불 속에 들어간 철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은 죄와 불의함으로부터 순종과 의로움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더욱 닮게 됩니다. 또한 연단 된 경험을 통하여 다른 고통받는 자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고난은 동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출구가 나오는 터널처럼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옆에서 함께 도와 주십니다. 숨이 차오르고 더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내 앞에서 동행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고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는 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마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1.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짐과 장애물 같은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달게 받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게 하소서.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1절a 믿음의 경주를 하며 라는 표현이 이 문장의 주 동사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주동사(경주를 하며)에 세 개의 분사들이(증인들이 있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수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강조점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1절b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기 당시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현대 육상선수들처럼 가장 최소한의 속옷만 입고 달렸습니다. 저자는 선수의 자세를 가지고, 죄와 얽매는 것을 모두 벗어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_ David L. Allen, Hebrews (New American Commentary), 18160-18161. Kindle edition.

2절a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헬라어로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음을 확신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 주십니다. "…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싸움의 대상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도덕적인 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Allen, Hebrews, 18272-18273).

7절a 징계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고려할 때, 훈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훈련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가정에 훈련이 필수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도 훈련은 필수입니다.("discipline is an essential element in a father-son relationship: as in human families, so also within the family of God"(Allen, Hebrews, 18321-18322).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초점이 자녀의 영적 성장임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들은 때때로 바르게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훈육을 시작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적절하고 완벽하게 훈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하도록 일시적으로 주어집니다.

11절a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표현은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의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9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

주요 사역 일정

- 순 내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소서.
- 시애틀 수요여성 가을예배(9/6)와 마더와이즈(8주)를 통해 말씀의 회복과 주님을 닮아가는 여성들이 되게 하소서.
- 행복한 부부학교(9/8-10)의 강사님께(도은미 목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모든 지원자들이 사랑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 쥬빌리 통일 구국기도회(9/8)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창립기념 주일예배(9/17)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형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양육강좌(9/6, 13, 20, 27)를 인도하는 강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고, 모든 참석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 전도폭발 훈련 가운데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훈련자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잘 준비되게 하소서.
- HJI의 모든 프로그램과 과목 담당자님들께 지혜와 성령을 주시고, 모든 참석자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영어 예배 일정

-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이재우 목사님과 찬양팀을 비롯한 모든 예배 준비팀에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소서.
- 영어 예배를 합력하여 섬길 사역자들을 보내 주소서.
- 신실한 순장님들을 세워 주시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 일정

- 각 교육부서에 새롭게 출석하는 신입생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 주소서.
- Sonlight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생님의 사랑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 Coram Deo의 자녀들이 하나되는 행사(코락실 9/16)를 통해서 친밀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 NEXT의 Back To School Gym Night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엮은이 권 준　　**펴낸이** 공동체 목회자팀

연락처 425-488-1004

이메일 hyungjaecommunity@hyungjae.org

주　소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Family • Faith • Holy Spirit • Mission